

한국기자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40돌기자협회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큰 기대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전시된 사진을 보고, 또 우리 이상기기자협회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기자는 박해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했던 그 시절의 업적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회장님 인사말씀에서 비장함이 그대로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망설이면서 약간의 박해도 받아 보고 또 나름대로 용기를 내 보기도 했던 터라 무척 친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날기자협회, 그리고 기자 일반이 지난날 투쟁의 역사를 아직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역시 희망과 기대를 가집니다.

모든 기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때와 같은 박해가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일은 잊어버리거나 감추어 버리고, 이제 '적당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현명했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두웠던 시절의 그 기억을 계속 기념하면서 미래를 경계한다는 것이 무척 믿음직스럽고, '역시 기자라는 직업이 앞으로도 그렇게 편하고 순탄하게만 살 수 있는 직업은 아니겠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함께 느낍니다.

저는 이제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권력에 대한 저항,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운명 또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한 번 던져 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권력은 군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 뒤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독점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정보를 지배하는 것은 모든 권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폭력에 의한 절대권력을 가진 과거의 지배세력은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했기 때문에 정보와 권력이, 정치권력이 일체화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도 정보통제가 불가능했다면 아마 정치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 시대에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저는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박해는 바로 정보를 수집·가공·배급하는 일이 갖는 엄청난 권력적 요소 때문에 정치권

력이 그것을 장악하려고 했고, 지배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에 정치권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정보통제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가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당신 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제는 그 어느 나라 지도자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힘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가? 청와대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단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남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월권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잠재적으로 사회의 정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스스로 권력자로서의 절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박해에 맞서 싸울 때보다 더 어려운 자기와의 싸움, 외부의 압제에 맞서서 싸우는 것도 커다란 용기이지만 자기 스스로 절제하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위협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자만이나 감정, 오기, 또는 이해관계나 그 밖에 언론사와의 관계, 제 사회세력의 영향이나 이해

관계, 그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 압제가 아닌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조금 전에 이상기 회장님의 비장한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장함이 왜 아직도 살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외형상 어렵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 기자라는 직업, 그 직업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무척 큰 공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큰 기대를 함께 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저 또한 언론 자유를 존중하고 언론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할 바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보면서 '진실은 국익에 앞선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진실 얘기를 하면서 뜨끔했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다. 때때로 제가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진실을 묻어 놓고 지금 그것을 왜 밝히지 않느냐.'는 채근을 받으면서 무척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을 하기 전에 한국의 원로 역사학자 한 분을 따로 찾아뵙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4·3사건의 1차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위원들과 총리에게도 '해방 이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인권의 침해나 가치의 파괴 같은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고, 또 바로 배워야 무엇이 옳은 역사인지 바로 내다보고 바른 역사를 만들어 갈 것 아니냐'는 고민들을 말

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반 가까운 세월 동안 뭐 하나 똑똑하게 해놓지 못한 데 대해서 ‘아직도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느냐.’는 채근을, 재촉을 받으면서 느끼는 미안함과 난처함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부를 제 임기 동안에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면, 진실은 국익에 앞섭니다. 그러나 같은 뜻으로 진실은 기자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도 우선해야 되고, 언론사와 그 시기에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도 앞서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자람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를 비방하고 탓하려면 탓할 것이 더러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모자람이 많을 것입니다. 모자람을 질책하되 서로 애정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질책하고, 그러면서 서로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협력합시다.

옛날처럼 떳떳하지 못하게 유착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 권세와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기자는 기자로서, 그야말로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